

오순절 후 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6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홍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4장 “주 우리 하나님”(통일 3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 번 (시편 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누가복음 (Luke) 24:1-51</b>	김현 집사
찬 양 Anthem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대
설 교 Sermon	<b>“꼭 찾아야 할 주님” (Lord to be found)</b>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94 장 “주 예수 보다 더”(통일 10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서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었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져서 죄가운데 무감각했습니다.

회개와 믿음도 추상적 개념으로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34:18, 율 2:13 상)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개역개정 눅 24:9)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NIV Luke 2:4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1 (주일)	6/12 (월)	6/13 (화)	6/14 (수)	6/15 (목)	6/16 (금)	6/17 (토)
	신16	신17	신18	신19	신20	신21	신22
본문	시103	시104	시105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사43	사44	사45	사46	사47	사48	사49
	계13	계14	계15	계16	계17	계18	계19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14수 오후7:30)	룻기 3) – “회복의 요소” (룻1:19-22)
토요 새벽기도회 (6/17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3) – “유모와 같이...”(살전2:1-12)

지난 주일(6/4) 말씀

“우물가에서의 변화” (요한복음 45-15)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녀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뿐 아니라 그녀가 사는 '수가라는 마을에 일대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자라온 가정배경은 잘 모르지만, 그가 여러 남자를 사귀고 동거한 것으로 보아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걸어온 길도 비정상적인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생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일러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때 여인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3. 생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소위 행복이란 것을 찾아 헤매지만, 묵은 항상 말라 있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길을 찾았고, 진리를 깨달았고, 생명과 연결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었고, 선교의 역군으로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낙스빌 한인교회가 좋은 만남의 우물가,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얻는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